

# 47과

##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✨

11월 23일



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고 계셨어요. 예수님께서서는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. 예수님께서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. 그리고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셨어요.



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  
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 
발을 씻겨 주어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 
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”

# 생각하는 아이

남우는 요즘 기분이 좋아요.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그림책도 찾았고, 나를 사랑하시는, 보고 싶은 작은아버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남우는 다시 성경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.

‘사랑하면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이라도 씻겨 줄 수 있나 보다.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.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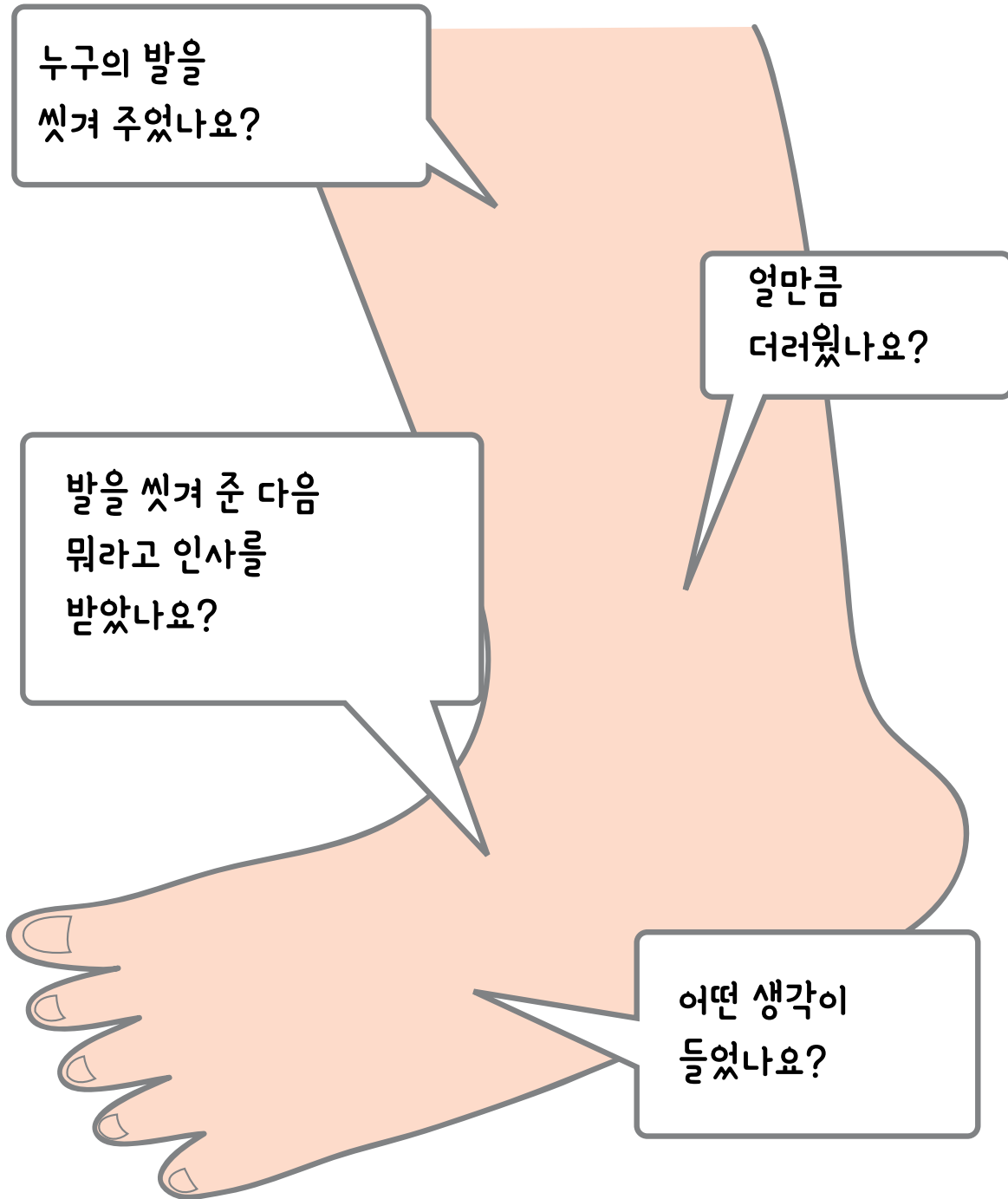
남우는 오늘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아빠의  
발을 씻겨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.

“우리 식구 중 최고인 아빠, 사랑해요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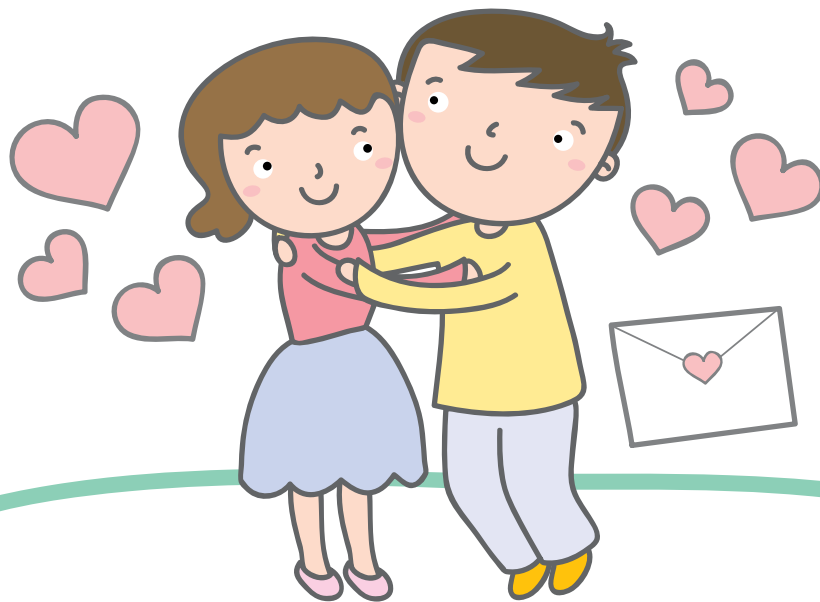
# 생각하는 아이

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 주세요.



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?

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.  
편지를 쓸 수도 있고, 껴안아 줄 수도 있어요.  
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써 보세요.



# 즐거움은 하얀둥이



우리의 발은 더럽지만, 서로 깨끗이  
씻겨 주어요. 하얀 크레파스로 더러운  
발을 깨끗이 칠하세요.





# 마음속 암송

따라 쓰기

내가 너희를  
사랑한것 같이  
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
요한복음 13장 34절

다시 쓰기

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